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렴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모든 것 내탓' 으로 돌리면 항상 화목

뉴욕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잃어 또는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는 먹고 싶어서 애를 쓰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진리가 어떠한 건지 듣고 알고,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불교라는 단어가 스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가, 아니 우주와 더불어 같이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와 같이 일체 만생명은 불(佛)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물도 꿈틀거리고 흙도 법망이 있어서 혈액이 있고, 인간에게도 혈액이 있어서 모두가 태어나면 항상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교(敎)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보다더 빨리 들어가는 이 시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정신계에 한 마음을, 한 발짝을 떼어놓고, 빛보다 더 빨리 우주하게 떼어놓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할 줄 알고 자 재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있는 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를 벗어나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통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만이 한생각에 우주를 활나게 돌 수도 있느니라. 활나게 들을 수 있으며, 활나게 볼 수 있으며, 활나게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간단히 생략해서 말하자면, 그런데 불교는 안이하고 활력이 없고, 전적으로 아주 해이하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시다.

## 일체 만 생명이 佛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몸 속에 말씀입니다. 생명체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또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 나고 가고 오고 했을 때, 물 한 컵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생명체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일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너 자체가 공했느니라. 색이 공이 공이 색이나라. 생활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실 때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떼어놓는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듣는 거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일거수 일투족 다 고정된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보는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듣는 게 있던가요? 아무 것도 없어요. 바람처럼 날아가고 또 닦으면 바람처럼 또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입니다.

그러서 여여하게 살라고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년까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자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모두 같이 삽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으나마. 그러나 이 미국사회에 와 보니까 전에도 와보고 그랬는데 부부기간에도 저녁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면 다음 날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또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집들이 많아요. 얼마나 바쁘지, 땅덩어리가 크고 공기가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도 여유있게 참 안도감을 갖고 편안하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편안하게 놀지를 못해요. 꼭 놀아서만이 노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좀 더 알았으면 몸은 다사로우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다면은 짜증도 날것이고, 화도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로움도 생기는 법이고, 여러 가지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몸이 병들고 마음까지도 병이 들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몸 속에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몸 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들어있는가.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인과성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또는 정자난자를 빌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하나로,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생명들이 있어야 만이 육체가 움직여갈테니까요. 또 그건 자동적인 인연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지은 인연입니다. 이것을 무시 못하는 것이 뭐하면은 인간은 고등동물이어서 아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는 내 몸 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몸 속에 주둔해 있는 것이 공했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나오는 대로 거기가 되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팔자운명이라고 울부짖고 애를 쓴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들으세요. 각자 여러분들 속에 애당초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해나가기에 이제 걸리고 저게 걸리고 저를 하고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지,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뱀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자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가 지어서, 즉 말하자면 관습과 욕심과 착이,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애지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 현실에 우리 마음이 그려졌으면 좋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여러분 각자, 자가 발전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자가발전소, 발전소에 에너지가 들복 있다고 합니다. 전력이 들어있다 합니다. 그럼 에너지란 말 고만두고라도,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쓰임 쓰임이 다가올 때 그 전력을 다 쓰게 되면은 통신력도 물론이거니와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천하가 다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그대로 통신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아니 전력이 있다면 밥을 지으려면 밥짓는 전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모터를 돌려려면 힘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자기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행복도 누가 뱀어 가는 것이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관습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했느니, 조상을 잘못 물어서 그렇느니라, 조상의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 한탄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허탕한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번기를 돌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거와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네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 하면은, 금방에 넘마 있

는 거 보셨습니까? 넘마 전에 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점에 가보면은 사과하고 배하고 한데 섞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전부 끼리끼리 상·중·하 팔라서 놓으면 낚지 절대로 같이 섞어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만나는 것입니다.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네 탓 네 탓 할 게 없이 부부기간에도 부모자식기간에도 모든 게 내 탓이로다. 똑같은 사과끼리 만났다면, 어디가 병이 들거나 이래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 서로를 위해서 해준다면 항상

아닙니다. 한철동안에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뿌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한 생을 거쳐서 세세생생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은 자유권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대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구요. 타의에서 구한다면, 형상을 구하고 이름을 구한다면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고 귀신장난과 같고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인가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

느냐는 거죠.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주체는 자기한테 있는 거야. 법당에 들어가든 성당에 들어가든 주체는 자기부터 있는 거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또 주님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주체를 보고 말했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다 할 수 없는 게 부처거든요. 내 몸 안에만 더불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일체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을 거치면서 진화해서 인간까지 와서도 수 없는 겁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별래는 부모 자식이 없었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반복을 하면서 사람까지 등장했다면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가 같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남의 부모도 부모라는 겁니다.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해서, 살생하지 마라, 의리와 도의, 사람으로 지켜라, 들로 보지 마라. 보시를 하되 내가 했다는 생각없이 보시를 해야만 이게 진정한 보시. 힘이 없이 해야만. 힘이 없이 해야만. 그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방 주었다해도 그건 벌써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질서를 지키

예를 들어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줘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돼지한테 사람이 가면 저항력을 느끼니까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사자가 들어온다면 그걸로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걸로 저항력을 느껴서 그 돼지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저항력을 느끼지 않게 하려니까 채 없는 마음이 바로 지금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살을 비유하죠. 그럼 지금 시냇물로 입자라고 합니다. 원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입자가 만약에 모두한테 투입이 된다면 투입을 해서 운신이 돼주고 조절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 그 도리를 아나기 말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산다 할 수 있고, 행복하다 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보시 아닌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난리를 치고 신문에 나게 하고 방송에 나오게 하면서까지 보시했다고 준다면 이게 진짜 보시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길을 지나가다도 소 한 마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너는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소 모습을 벗고 사람으로서 나오려면, 또 죽이는데도 아프지 않게 마취를 시키는 것처럼 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는 아프지 않고 그냥 가게 되죠. 그러면서 몸을 벗죠. 소의 몸을 벗어서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돼주고, 약이 돼주면서 자기 영혼은 진화해서 바로 탄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께서도 그랬단 말입니다. 왼손으로 주는 거 오른손이 몰라야 하고, 오른손이 주는 거 왼손이 몰라야 한다고 했는데 뜻

## '팔자 운명' 없는 것

##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

## 선행은 결국 알려져

고 문란하게 살아가지 않으리니까 모두 달을 만들어 놓고, 일을 만들어 놓고 정돈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 수억 겁을 거치면서 진화시켜서 형성시켜온 참 자기 말입니다. 참 자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떠한 구정물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 때, 너만이 세 물 나게 할 수 있어.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말을 안 해도 벌써 그렇게 되지만은 처음에 초발심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처럼 앞서 입력을 없애지게 하면서 지푸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모두가 한군데로 들어가죠. 나는 지금 불교 믿는 사람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각자가 발전을 시켜야, 지구 한 덩어리를 요런 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구를 한 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 컵 안에 우리들은 복잡복잡하고 들어 있는 겁니다. 뭐 두말할 거 없이 통에 구멍이 그냥 우글우글하듯 말입니다. 그 안을 그냥 기어 나오다가 똑 떨어지고, 기어 나오다 똑 떨어지고 이러는 건 또 우리 공부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 에너지라고 비유한다면 지구라는 우리 몸 중에도 집입니다. 여러 생명들의 집이요, 집합소요. 그렇듯이 이 지구도 지금 우리의 집합소요. 집합소에서 살면서 우리가 오염되게 하고, 인구가 많아서 오염되게 하고 벌레들이 땅 파먹듯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파먹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신계의 발전을 하고 차원이 높아져야 허공에도 에너지가 잔뜩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모두 높이 있는 에너지도 꺼내서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나갈 때도 역시 그렇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도 역시 그렇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불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라는 이름 아닌 부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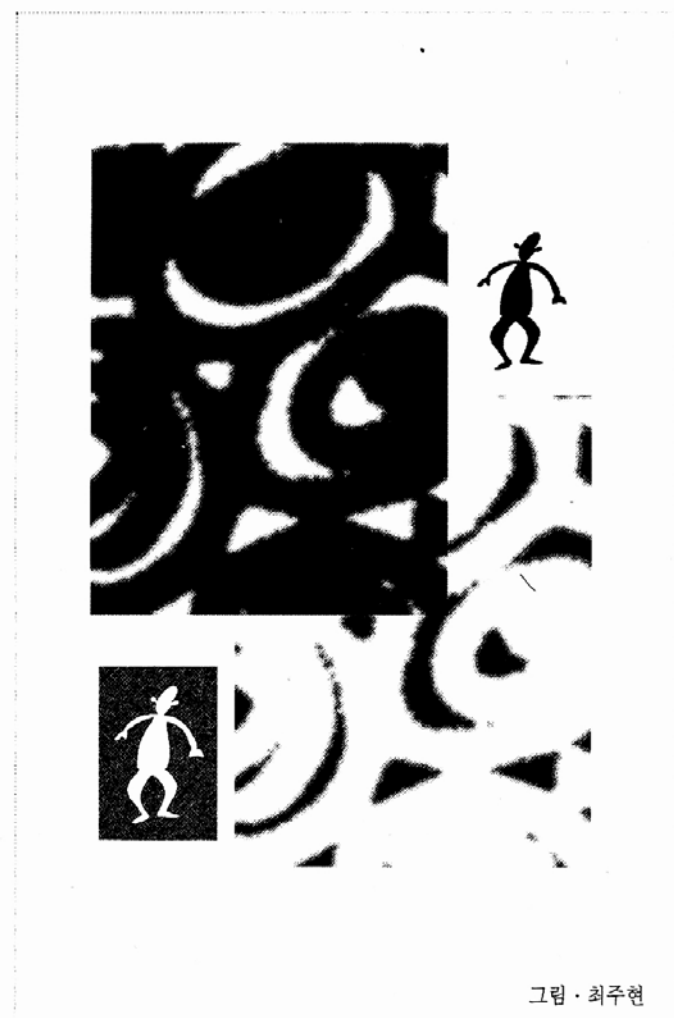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신의 뿌리 믿어야 공덕 있는 법 육신 믿지 말고 마음부터 찾아라” 요란떨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참보시

화목하고, 돈도 갈기갈기 찢고 야단법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 '오 집에 들어가면은 행복하겠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 가정이라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돈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차적으로는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게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대를 물려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빛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 더불어 사는 한 개체일 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배우가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역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인생 한철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또 애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해가 넘어가면 난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번기를 돌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거와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네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 하면은, 금방에 넘마 있

하게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타의에서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믿고 각자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바로 마구니의 장난이 아니라, 생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벽을 치면 붓장이 울려야 할텐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편지도 그렇게 하구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껌떼기를 찾는 격이 돼버리죠. 또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발견하라. 그렇게 된다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들어 아니니라. 모두가 선지식들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미처해서 진짜로 알아들을 때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타의에서 찾지 말고 자의에서 구하라 한 것인데 아마 각자 소리를 빼놓으셨던 모양이죠. 허허허. 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종교를 믿지 말라